

전남 동부권

광양 '도선 선차' 명품 만든다

농진청 공모사업 선정... 포장지 개발 등 콘텐츠 다양화

광양시가 '도선 선차(禎茶)'를 지역 차문화 명품브랜드로 가꾼다. 광양시 차연구회는 2010년 농촌진흥청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전문능력 향상사업 공모사업에 '도선선차연구와 브랜드화사업'을 응모해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도선선차 포장지 디자인(9종)을 개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으며, 차 대중화를 위한 차시음회 및 홍보, 입차를 삼각 티백차로 만들어 실용화한 차로 개발하는 등 보다 많은 경쟁력을 갖는다. 이와 함께 도선선차에 대한 연구역시 도선국사의 문화적 정신적 콘텐츠 다양화 유도와 광양의 대표문화 브랜드로 육성, 관광관광 및 녹차관련 산업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마케팅 수업을 바탕으로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 차연구회(회

장 박연숙)는 최근 광양시 친환경농업대학에서 50여명의 차연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선선차 브랜드화를 위해 국제 차문화협력재단에 의뢰한 '도선선차의 문헌적 고찰과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원광대 장정현교수는 '도선 전후시대의 음다법과 다도구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해 "도선선차 전후의 다도구와 음다법은 당나라의 차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신라의 풍류적 아취적인 기질과 함께 신라만의 독자적인 더욱 고급스러운 문화를 형성했다"며 "옥룡사에서 발굴된 햇무리급 화형완 등을 모델로 삼아 다구를 재현하고, 가루차 행다법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순천대 김우영 겸임교수는 "옥룡사지 입구의 차나무는 직경 25cm, 둘

레는 78cm로 하동 화개골 '천년수'보다 더 오래된 우리나라 최고의 녹차나무"라며 "추후 과학적인 확인과 검증이 되면 1100여년 광양 자생 자살차의 역사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시 김병호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 국제 차문화학술회를 광양에서 개최해 전국의 차인들에게 '도선선차'를 널리 홍보하겠다"며 "차전문가들과 광양시 차연구회원들간의 소통으로 도선선차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신라 말기 뛰어난 고승이자 한국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827~898)는 광양시 옥룡면 백계산 옥룡사에서 35년간 머무르며 야생차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엄마랑 딸기 따러 왔어요"

곡성군 곡성은 대신 정보화마을(daesin.invil.org)을 찾은 한 가족이 시설하우스에서 직접 딸기를 따고 있다. 대신정보화마을은 오는 5월 중순까지 딸기 따기와 주먹밥 만들어먹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곡성군 제공>

광양 '택시 복합활증구역' 재조정

종마동 등 5개 지점...내달 1일부터 적용

광양시는 신규 도로개통과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복합활증구역'을 재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복합활증구역 재조정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해 8월 시 관계자와 택사업계 관계자가 복합활증구역 폐지 및 경계지점 변경

대상지역을 현지 확인해 재조정안을 마련하고, 같은달 17일 택시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재조정안을 협의했다. 이번 택시 복합활증구역에서 폐지된 구역은 컨테이너부두와 마린센터이다. 경계지점이 변경된 지점은 종마동 대근사거리에서 마린센터 입구로, 성황도서관 입구에서 도이동삼거리로, 골약교차로에서 정산마을 입구와 동양레미콘 입구로, 태인 응

지점류장에서 공기마을 입구 등 5개 지점이다. 또한 5월 개청 예정인 신광양역은 개청과 동시에 복합활증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협의했으며, 도월리 자연마을은 현행대로 복합활증구역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협의된 택시 복합활증구역 재조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22일자로 광양시 택시 복합활증구역 변경 고시하고, 28일까지 경계지점 변경에 따른 경계표지판 이설 작업을 완료해 다음달 1일 지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김병호 교통행정팀장은 "다음달 중에 택시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고흥군,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 지원

고흥군이 행정 최일선에서 군정시책 추진의 가교자인 각 마을 이장들의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와 자기진작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험에 가입한 이장은 남자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24시간) 재해에 따른 사망, 장애, 암 진단, 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보험료는 가입대상자 성별 평균연령을 적용해 단일 보험료가 적용된다. /동부취재본부=주지중기자 gjju@

여수박람회 교통혼잡 방지 외곽 환승주차장 6월 착공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박람회장까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23일 조직위 사무국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환승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리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는 여수시내의 열악한 교통여건(자투형 폐쇄지역)을 고려해 환승주차장을 박람회장 외곽에 조성하기로 하고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 20분내 박람회장 안으로 진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계

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 2월에 환승 주차장을 완성해 충분한 시험운행을 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그동안 박람회 기간중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비해 대규모 토지사용이 무상으로 가능한 ▲여수산단 ▲울촌산단 ▲죽림지구 ▲산천 신대지구 ▲광양 마동지구를 환승주차장 후보지로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반조사와 교통량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후보지의 위치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배임혐의 前 여수 도시공사 사장

시민사회단체 엄정 수사 촉구

여수시 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6일 이모(57)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김충석 여수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도시공사 청산작업을 즉각 구체화 시킬 것"을 강조했다. 여수시민협 김대성 사무국장은 "수사당국은 이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입증과 다른 인사의 연루 가능성을 철저히 신속하게 수사해 밝

혀 달라"며 "오 전 시장의 비리와 시민들의 비리 혐의 등으로 무너진 여수의 이미지를 더 이상 실추 시키는 일이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경찰에 따르면 여수시도공사 이모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재임 당시 '여수 돌산 관광문화 복합해안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1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공사에게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전 북

군산~제주 '위그선' 9월 첫 운항

'물 위를 나는 비행기'로 불리는 위그선의 군산~제주간 국내 첫 상업운항이 이르면 수면비행 선박 조종사가 배출되는 오는 9월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첫 상업운항에는 50인승 규모의 위그선이 투입되며, 운영 소요시간은 2시간여로 예상된다. 위그선은 바다위 5m 높이에서 시속 180~250km로 순항하는 해상교통수단으로,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메다 연료 소모량도 고속선과 항공기의 3분의1에 불과해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오션익스프레스가 군산~제주 노선의 위그선 운항을 위해 지난달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신청해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중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 앞바다서 '보물 탐사'

국내업체, 내달 일제시대 침몰 화물선 금괴찾기 나서

일 시마마루호 10t 적재 추정

국내 한 탐사업체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침몰한 화물선의 금괴찾기에 나설 계획이어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군산시의 군산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소재 A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남서부 3마일 해상에서 매장을 발굴

승인을 받아 침몰선 인양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업체가 인양할 선박은 일본 화물선인 '시마마루 12호(253t 추정)'. A업체는 이 화물선이 1945년 7월께 10t 이상의 금괴를 싣고 항해하다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러시아 소나탐사선을 이용한 해저수색에서 '시마마루호'로 추정되는 선박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

서 대체로 기상여건이 좋은 3월 한 달 내에 보물선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렸고 군산 해양환경청도 이달 초 매장 발굴승인을 해준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체 측의 예기대로 실제로 보물선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지, 또한 인양작업이 성공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사주는 노조 인정...노조는 파업 중지"

'버스파업 토론회' 안호영변호사 절충안 제시

80여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의 해결책으로 '사업주 인정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지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전북변호사회회 안호영 변호장은 전주시의회 주최로 23일 열린 '시내버스 파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

민토론회'에서 "법적으로 불투명하고, 시민 불편이 크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절충안"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안 부회장은 먼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1심 등에서 법원이 이미 '사업주는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라'는 결정을 했다"면서 "따라서 잠정적으로 노조를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안 부회장은 노조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동시에 파업을 중지하고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양측의 합의를 보증하며 성실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하라고 제안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전북 첨단 농업교육시설 건설 순항

전북도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농업교육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농업사관학교와 실용농업교육센터(JATC)를 건립하고 내년 5월만 농업사관학교는 연면적 2926㎡(4

실용농업 교육센터는 연면적 3589㎡ 규모로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시설원에 교육을 위한 첨단 유리온실(8실)을 비롯해 운영시설(2층),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열 냉난방시스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온실 기초공사와 부속실 기초공사 및 철골공사, 지열 전공·그라우팅 등을 완료해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홍윤선기자 knews@

단 신

전주국제영화제 스마트폰 단편영화 공모

전주국제영화제(JIFF) 조직위원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단편영화 공모전인 'JIFF 폰 필름 페스티벌'을 신설하고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최근 급속히 확대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영화제작 방식을 탐색하고 휴대전

화로 촬영한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대상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5분 분량의 자유로운 기획 영상물이며, 입선작에는 최고 300만원의 상금과 영화제 기간에 상영 기회를 준다.문의(063-280-7911)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김제농기센터 '영농 4-H회'에 지원금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는 올해 미래농업의 주역인 우수 4-H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영농과제 4개소를 선정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센터는 과제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회원들이 경작하는 작

목에 맞맞는 새기술 실천과제 등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재배기술을 컨설팅해줌으로써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경영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시 익산국토청에 국책사업 협조 요청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21일 김일평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면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김시장은 ▲상교통 구암마을 앞 국도 1호선 교량설치 ▲국도 30호선 신대마을 신축교차로 박스설치 등 정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주민 200여명이 천막농성을 하며 요구하고 있는 구암마을 해해서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풍산농공단지내 '나은생활' 직원 모집

순창군 풍산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나은생활(대표 성승환)이 28일까지 직원을 모집한다. 가정용 차아 스케일링 및 세정기, 차과용 연마제를 생산하는 (주)나은생활은 지난해 12월 풍산 농공단지내 부지 3435㎡에

765㎡ 규모 공장을 건립, 이달 등 록을 마쳤다. 모집분야는 생산분야 25명·영업 5명·총무 1명·경리 1명·식당조리원 1명 등 모두 34명으로, 순창군 거주자를 우선 채용한다. 문의(063-652-0025)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평일 전북도청 서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는 게 기본 도리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차는 차량 300여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이는 흠잡지 않아 불합치에 부시책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위장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이 다. 물론 흠잡지 않아 부시책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위장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이 다. 물론 흠잡지 않아 부시책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위장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이 다. **강철수** (전북취재본부 기자) **평일 전북도청 서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는 게 기본 도리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차는 차량 300여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이는 흠잡지 않아 불합치에 부시책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위장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이 다. 물론 흠잡지 않아 부시책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위장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이 다. 물론 흠잡지 않아 부시책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위장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이 다.**